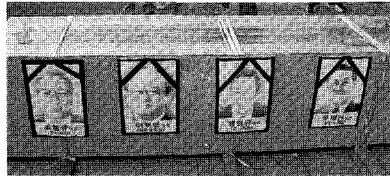


# 11·19 전국농민대회



## 11.19 전국농민대회 닷 올려...

되돌아보면, 올 2003년은 많은 기대와 함께 실망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큰 한해였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400만 농민의 바램과는 달리 노무현정부는 여전히 개방 일변도 농정방향과 농업축소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은 첫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고 중장기농업정책 등 농정의 큰 틀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존폐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04년은 대외적으로 쌀 재협상, 양자간 세부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국내적으로는 4월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정부 농정방향의 전환 및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등 향후 10년 농정방향이 제시되는 중요한 해이다.

이렇듯, 국내외 농업을 둘러싼 정세는 400만 농민들의 대대적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한농연 중앙연합회는 이러한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정부농정의 평가와 함께 향후 참여정부 농정의 청사진마련 촉구 등의 취지로 11.19 전국농민대회를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상정(3차 이사회, 5.15)

하여 준비에 들어갔다. 그 복선에 깔린 의미 또한 '농업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에서 11월 19일을 대회 날로 결정한 것이다.

## 우리농업사수, 우리쌀 지키기, 400만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우선, 11.19대회 개최의 합당한 취지와 강력한 요구는 12만 한농연 뿐만 아니라, 400만 농민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목적달성을 위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농정평가와 향후 농정방향 및 중 장기적 농업 청사진 제시 쌀 지키기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 및 식량주권 사수 농가부채 해결 및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농민생존권 쟁취 국내농업 위기극복과 회생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농민이 주인 되는 협동조합 개혁 관철 등의 5대 목적을 설정했다.

이는 곧, 대내외적으로 WTO/DDA협상이 농업개방과 축소를 강제하면서 국내농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WTO 쌀재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쌀 관세화유예 관철 등 국민주곡인 쌀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였다. 또한, 농업농촌의 실정은 농가소득보장 대책의 부재와 수입개방 등 도시민 대비 소득이 73%까지 떨어지는 농가소득 폭락이 이어지면서 400만 농민은 생존권조차 박탈되고 있었다. 이

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와 농가소득 폭락에 따른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400만 농민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타파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이렇듯 합당한 취지와 명확한 목적, 강력한 의지는 11.19대회를 거침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다. 지난 6월 10일 마련된 「11.19대회 관련 최종 준비기획안」을 기초로 7월~8월 “논두렁·밭두렁 깃발 꽃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포문을 열었다. 이어, 8월에 개최되는 ‘도농업경영인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11.19 준비위원단 발족식과 함께 400만 농민 서명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했다. 또한, 11.19대회 준비를 위한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직원 워크숍(8.26~27)을 통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9월 7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제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투쟁의 불길은 사료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바로 고 이경해 열사의 자결이다. 한농연중앙연합회 2대 회장을 역임한 고 이경해 열사의 목숨 건 투쟁은 400만 농민의 심장을 울렸고, 4,700만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에 따라, 9월 20일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는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영결식이 개최되었다.

한번 붙은 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400만 농민의 심장을 울린 ‘이경해 열사 서거’와 제5차 각료회의 저지 성과는 400만 농민을 더욱 똘똘 뭉치게 했고 11.19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활동에 더 큰 책임과 임무를 던져주었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10월 1일 6차 이사회를 통해 “11.19대회 및 후반기 농권운동 계획”을 결정을 한데 이어, 10월 6일~7일 ‘11.19대회 관련 전국농민연대 대표자 집행위원 워크숍’을 통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제안해 명실상부한 “400만 전 농민 투쟁”을 이끌어 냈다.

### 11월 19일 전국의 10만여 농민들 서울로 서울로 상경

11월 19일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2,500여대의 버스를 타고 서울로 모여들었다. 특히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농민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상경을 시작했다. 많게는 100여대에서 적게는 수십대에 이르기까지 무리를 지어 상경하는 버스들마다 “한-칠레 FTA 반대한다”,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하여 우리농업 지켜내자”는 내용의 현수막과 다양한 선전물들이 상경하는 농민들의 굳은 결의를 짐작케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가는 길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울 외곽과 대회장 주변에서는 경찰들이 차안까지 검문하며, 농민들이 준비해온 완장과 깃대로 쓰일 대나무를 비롯하여 선전물, 소주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농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농민들이 우리 돈내서 준비해온 물품과 먹을 것을 너네들이 뭐데 빼앗냐?” 며 농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고, 경찰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농민들의 물품을 압수(?)했다.

###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10만 농민들이 집결한 가운데 본 대회 시작

경찰의 검문과 경부고속도로 사고로 농민대회는 예정보다 조금 늦은 1시 30분경에 시작되었다. 여의도 한강 둔치 9만여명,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1만여명의 농민들이 집결한 가운데 농민대회는 행사는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은 ‘FTA결사반대’, ‘열사정신 계승’, ‘쌀수입반대’ 등의 구호를 적힌 쌀포대를 비롯하여 상복, 풍선

등 시군마다 다양한 선전물을 준비해 취재진과 서울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한강둔치를 가득 메운 10만 여명의 인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 전국농민대회에서 참석한 10만여 농민, 정부와 정치권에 「전국농민연대 10대 요구안」 강력히 촉구

전국농민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400만 농민들의 심정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농업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농정실패와 농산물수입개방의 확대, WTO농산물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더 큰 개방공세로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으나, 정부는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에 불 지르고 농업을 포기하라고 한다.” 고 말하고, “우리 농업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400만 농민이 단결하고 전국민과 함께 정부와 농업개방론자와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 고 역설했다.

또한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은 “우리는 칸쿤에서 산화해 가신 이경해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이으며, 풍전동화와 같은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기필코 살리겠다는 마음가지짐으로 여기 모였다.” 며 오늘 대회의 취지를 밝히고, “농가부채가 호당 1억 4,000만원을 넘어서 1년에 100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남은 농민들도 붉은 글씨의 상환독축장에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손쉬운 신용사업과 자채 돈벌이만 열중해 한해 5,00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고 “농가부채와 절망에 짓눌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굶판’을 바로 오늘 여기 모인 농민들의 손으로 반드시 끝장내자.”고 말했다.

이밖에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김인호 한여농중앙회장은 “400만 농민들의 탄식과 고통이 하늘의 소리임을 명심하고 정부는 두눈과 귀를 열어 이를 보고 들어야 할 것이며, 역천의 불행을 자처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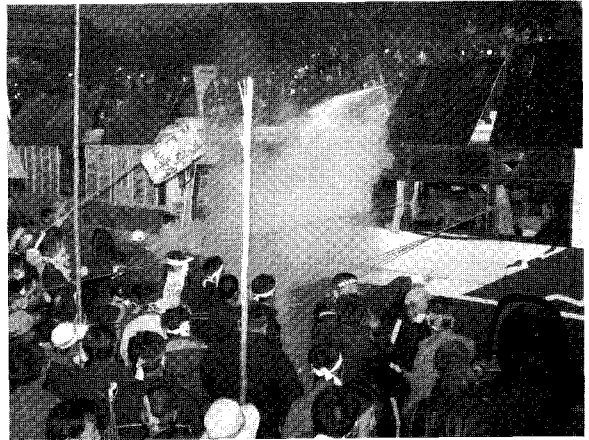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민대표의 연설이 끝날 때 마다 환호와 구호로 화답하며, 농민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세계 최대농민 조직 비아감빠시나(농민의 길)  
한국농민들의 투쟁에 연대 메시지 보내와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제5차 각료회의 저지투쟁과 故 이경해 열사 추도식을 함께 했던 세계최대농민조직인 비아감빠시나 대표는 “한국농민들의 전국농민대회를 맞아 WTO반대와 한-칠레 FTA 반대 투쟁의 최선에서 싸우시는 한국농민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의지를 보내며, 식량주권을 위한 투쟁을 세계화 할 것이며,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의 농민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故 이경해 열사 딸 이보람씨 이지혜씨  
농민대회 참가, 참가농민들에게  
“아버지의 뜻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부탁

故 이경해 열사의 첫째 딸의 이보람씨가 농민대



회에 참석해 농민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 계신 분들의 심정일 것이라며, 아버지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해 농민들의 눈시울 뜨겁게 했다.

노동자, 대학생들도 농민대회에 참여,  
농민들과 연대의지 밝혀

이번 농민대회에서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과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단으로 대거 참가해 무대설치 및 주차안내 등으로 성공적인 농민대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어 농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농협노조에서는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연대의 의지를 밝혔으며, 그밖에도 기아자동차 노조 등 많은 노동조합에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19일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종묘공원으로 이동 농민대회에 합류했다.

### 농민들 WTO, FTA, 농가부채, 농협중앙회, 쓰여진 대형천 찢는 상징의식 가져

본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머리 위로 WTO, FTA, 농가부채, 농협중앙회라고 쓰여진 대형천을 머리위에서 찢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10만 여명의 농민들의 머리위에서 행해지는 상징의식은 농심을 그대로 반영한 의식이었으며, 언론사들도 이를 취재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등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 본대회를 마친 농민들 여의도, 공덕동, 원효대교, 종묘공원으로 가두행진 시작

본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방송차와 100여개의 완장을 앞세우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여의도에 집결한 9만여명의 농민행렬은 대회장을 빠져나오는데 것만해도 몇시간씩 소요되었다. 농민들은 여의도문화마당 방향으로 5만여명, 공덕동 로터리 방향으로 3만여명, 원효대교 방향으로 4천여명, 대학로에서 종로 방향으로 1만 여명이 가두행진에 참가했다.

### 농민들, 거리행진 막아선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 농민 100여명 부상 107명 연행

여의도 문화마당 방향으로 행진한 농민 5만 여명은 여의도문화마당 앞에서 경찰이 막아서자 격렬히 항의했다. 한 농민은 “우리가 새벽밥 먹고 너희들 보러 온거 아니다. 길을 비켜라! 그 높은신 국회의원님들 얼굴이도 봐야겠다” 며 경찰버스를 넘어 국회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버스 2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물대포와 소화기 곤봉을 동원해 올라오는 농민을 밀쳐냈다. 이에 농민들은 결분하여 경찰버스를 밀며, 결렬히 저항하였으며, 경찰의 강제진압에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당해 119 구급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하던 김흥기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과 구자룡 한국농어민신문사 기자가 연행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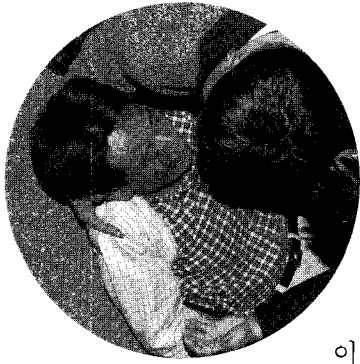
한편 공덕동 로터리로 진출한 2만여명의 농민들도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곤봉과 방패를 앞세운 경찰의 강제진압에 완장과 깃대로 대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 농민은 이가 부러지는 등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종로 방향으로 진출하던 1만여명의 농민들도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연행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연행자 석방과 과잉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강제해산을 시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농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부상을 입자 거리의 시민들과 농민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하였다.

### 경찰의 강제진압에

#### 밤 늦게까지 항의시위 계속돼

참가농민들은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 밤 늦게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경찰과 대치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저녁 8시경에는 공덕동과 원효대교로 진출했던 농민들이 합류했다. 또한 종로에서는 연행자 석방과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등을 요구하며 종로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농민 200여명은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고, 노숙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다음날은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행자 석방과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다 50여명의 농민들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에서 110여명의 연행되었으며, 20일 이정범씨(나주) 문종필씨(해남), 한동희씨(공주) 구속되었다. 또한 12월 6일과 8일 한기정(진주)씨와 홍번씨(전농 조통위원장)가 추가로 구속되었다.

####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2차 농민대회 개최, 전국 100여개 시군에서 지구당사 항의방문, FTA 찬성 조합장 규탄 투쟁 등 벌여

전국농민연대는 11월 19일 1차 농민대회에 이어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2차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와 구속농민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 100여개 도, 시군에서 100~300여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전개된 2차 농민대회는 한-칠레 FTA 찬성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주요 정당 지구당사 항의방문, 한-칠레 FTA 찬성 농협조합장 규탄, 현물 납부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 12월 8일,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를 통해 FTA 국회비준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저지!! 구속농민 석방 촉구

지난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4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가 연석회의를 갖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 연내 처리에 합의하였다. 또한 지난 4일 농해수위 이양희 위원장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한-칠레 FTA 국회비준 처리를 직권상정을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위의 같은 사실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농민들은 전국농민 500여명은 주말인 끝난 8일 서울로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민들을 위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참석자들은 이양희 의원을 비롯한 각 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의 사진을 걸린 판을 불태웠다.

서정의 중앙회장은 규탄연설에서 "저들이 더 이상 농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말했다. **민농연**